

예수 승천 대축일  
(홍보의 날)

기도서 P.305 C해  
1독 (사도행전 1장 1-11절)  
2독 (에페소 1장 17-23절)  
복음 (루 가 24장 46-53절)

# 숲정이

|     |     |
|-----|-----|
| 발행인 | 범석규 |
| 인쇄인 | 정승현 |
| 주간  | 조성호 |
| 편집  | 한상갑 |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강론□



## 현대와 홍보

김병엽 신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루가 24, 46-48)

몇 해 전 일이다. 국민학교 동기 동창인 동무가 남부 시장에서 신발 도매상을 크게 경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몇 년 후 그 신발점을 다시 찾아 갔을 때에는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우연히 시내를 걷다가 그 동무를 만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국제 고무시세에 대하여 너무나 무식했고 알고도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날인가 다른 도매 신발점에서 몽땅 자기의 점방의 신발을 사가기에 이상하게 여겼더니 아닌게 아니라 일주일도 채 못되어 도매 신발 가격이 배로 쯤췌 뛰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지런하게 남뛰고 일만 하면 잘 살수 있다는 철학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만일 그 철학의 원리에다 국제 고무가격에 대한 뉴스에 더하기 실천만 더하였더라면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거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많은 이에게 전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도들은 많은 군중앞에서 설교했고, 짝을 지어서 혹은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법정에 끌려가면서 전교 여행으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시대에 와서는 신문물을 보고서 몇 시간 전, 지구서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알수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을 라디오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으며 볼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파하느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홍보수단으로 제정한 것이다.

로마의 본교구장이신 바오로 주교는 “메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메스 미디어의 문제 취급의 이유에서 “메스 미디어가 율게만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익 성교회는 어떠한 심정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과연 그것들은 정신적 휴식, 교양의 향상,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본분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이용하여 창조주를 거슬러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들의 남용으로 인류사회에 너무나 자주 해독이 초래 된다는 것을 교회는 자모적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다.

(수류 천주교회 주임신부)

□홍보주일에 부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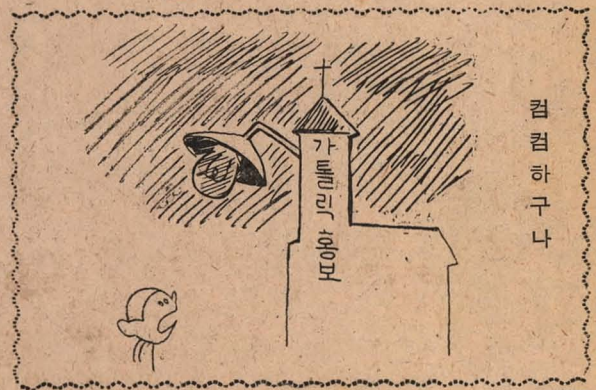
## 言官과 史官

“전제군주의 나라—여기서는 임금의 명령이 곧 법령이요, 모든 정치가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정승 6판서를 비롯한 문무 백관은 이 정치를 보필하고 집행하는 데 불과하다. 이 정치, 곧 임금의 말과 행을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여 그 노선이 빗나가는 것을 막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것을 북돋아주는 것이 이 言官의 소임이었다. 여기에는 비상한 기개(氣概)가 필요하였다. 임금의 말 한 마디로 생명이 좌우되기도 하는 시대, 그 속에서도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言官의 책임이었다. 徐居正 같은 이는 이 언관의 기개를 말하여 「항뇌정(抗雷正) 도부월(蹈斧鉞) 이불사(而不辭)」라고 했다. 아주 풀어서 말한다면 「벼락이 떨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가도 서슴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사실 언관들이 직위는 무슨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장상(將相)이나 종척(宗戚)이라도 이를 규탄해야 할 때는 서슴지 않았고, 물론 임금에 대해서도 항상 극간(極諫)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았던 것이다.

言官이 오늘의 비판을 말한다면, 史官은 내일의 비판을 위해 예비하는 것이라 할 것이었다. 이러한 언관이나 사관은 주로 자질이 우수하고 기백이 늙름한 젊은 관원에서 뽑았고, 그 선발에 있어서도 치밀한 절차를 밟아서 적임자를 골라왔다. 사관을 뽑을 때는 그 선발의 책임을 지는 이들이 단을 모아 향을 피우고 「만일 내가 적임자 아닌 사람을 천거한다면 재앙을 받아도 좋다」고 천지에 맹서한 뒤에 선발을 하였다고 한다. 또 언관의 어느 직책은 자신의 생활의 결백을 상징하여, 비록 부유한 집의 자제라도 노주한 토홍(土紅) 빛 옷을 입고 떨어진 안장에 비루먹은 말을 타고 다닌 때가 있었다고 한다.

(千寬宇, 사상계 62년 1월호 발췌)

## 숲정이 산책



# 매스 미디어에 있어서의 광고

## -이점, 위험, 책임

세계 홍보의 날을 맞이하여 왜 이와같은 주제를 제기하는가?

세가지 적절한 이유가 있다.

- 1) 홍보수단은 오늘날 광고의 주요한 매개 수단이다.
- 2) 광고 대행사들이 미디어에 있어서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온 이래로, 이들 대행사는 정보와 '홍행성 산업' 정책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여론의 이념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가톨릭 홍보수단은 광고물을 잘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세계 홍보의 날에는 이러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점들이 있음을 여론에 상기시킨다.
- ② 기존 규약과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고 산업과의 다방면에 걸쳐 실제적 대화를 마련한다.

③ 크리스찬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읽고 보고, 듣는 광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광고의 제시 또는 그 내용을 발견할 때마다 강력히 그러나 과장됨없이 그들의 반응을 주지시키게 한다.

④ 가톨릭 미디어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특성과 부합되는 광고만을 받아들일도록 격려한다.

(이상은 교황청 매스컴 위원회의 홍보수단에 대한 의견 제시이다).

사목훈령 「일치와 발전」이 제시하고 있는 광고의 사목적 문제점들을 상기해 보자. (59-62)

59. 광고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나날이 증대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광고는 많은 사회적 혜택을 준다.

다만 광고는 진실을 신조로 삼아야 한다.

60. 백해무익한 물품을 대중에게 신전하거나, 물품을 팔기 위해 허위선전을 일삼거나, 인간의 저급한 경향을 자극한다면, 이런 광고의 책임자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고, 드디어는 자신의 권위와 신용도 상실하게 된다.

61. 반대로 절제있는 광고는 발전하려는 국가들을 고무하여 그 생활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광고와 선전이 너무 지나쳐서 가난을 벗어나 적당한 생활수준에 도달하려는 국민들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 눈이 어두워진다면 재산을 낭비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소홀히 하며 진정한 발전을 낙후시키는 큰 손해를 입게된다.

62. 그러나 막대한 광고비는 홍보수단의 기초마저 위

협한다. 광고수입이 홍보수단의 생명이 되어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는 홍보수단만이 존속할 수 있게 된다. 홍보수단의 독점현상이 일어나고, 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와 사회적 대화의 길이 막히게 된다. 필요하다면 법률 제정 하여서라도 이미 강력한 세력을 가진 홍보수단에게만 일괄 광고비가 제공되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 (세계 홍보의 날 신자들의 기도)

친애하는 형제여러분! 광고는 사람들이 물건과 일용품을 사는 일 등이 원활하고 정당하게 되도록 돕는 데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큰 이 광고수단이 언제나 진리와 사회정의와 그리스도교 질서에 합당하게 사용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인 발전과 복지를 가져다 주는 데에 공헌할 수 있게 되도록 다같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1. 모든 크리스찬들, 즉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기쁜 소식을 언제나 어디서나 "밝은 데에서" 그리고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 그리스도의 길과 메시지를 알려야 할 자신들의 의무에 유념토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2. 광고 산업이 인간의 품위에 대한 존중심을 보증하고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간의 생의 본질적 가치들을 조금이라도 거부치 못하게 하는 그들의 전문적 윤리 규약을 설정하여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3. 광고를 다루는 공적 직무에 있는 이들이 구매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4. 광고 메시지를 받게되는 소비자들이 교육되어, 성숙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고 공익의 요구에 일치하여 이 세계의 재화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5. 모든 광고의 핵심이 되는 설득력이 타인들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람들 사이의 일치와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의 향구한 운명을 성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매스 미디어 안에서 언제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주례자> 오! 주님, 당신은 지상의 세계를 건설할 위대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 모든 형제들끼리 일치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도구들을 인간의 손에 맡겨 두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이 홍보수단들이 인간의 지상의 작업에 있어서 실제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 통해서... ◎아멘

### □개업 안내□



건축 상담 환영!!!  
설계·감리·허가 수속

##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금구<연>)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3-1449

### ☆새로나왔다! 삼화은수 보일러☆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한
-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 각 시군대리점 구함(가 가정에도 저렴으로 직접 시공)
-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사순절 헌금 내주신 분 ③

◆ 상 관 ◆

- 신 리** 이상호신부 (1,235), 한금란 (1,115), 김봉열 (1,400), 남현준\* (1,175), 김중열 (1,000), 이월숙 (755), 김종석 (500), 김병일 (215), 강옥례 (550), 서정만 (460), 김성근 (710), 오준석 (990), 서병철 (530), 김봉길 (305), 박성여 (530), 원귀화 (440), 강인선 (625), 송두성 (250), 이경애 (190), 정영만 (340), 신용직 (350), 한동명 (440)
- 외어두** 여귀일 (1,210), 이종섭 (485), 양병옥 (505), 김중순 (215), 윤용배 (400), 임창권 (605), 강문옥 (539), 양병옥 (505), 김중순 (215), 윤용배 (400), 황옥섭 (580), 최중태 (220), 김규배 (500), 이완봉 (170), 양재덕 (285), 정찬수 (770), 최용선 (190), 이월성 (125), 이장수 (80), 조재철 (280), 최영환 (535), 최성기 (325), 이정우 (331),
- 내어두** 남창옥 (1,150), 박동섭 (430), 강기철 (630), 김성기 (475), 강덕용 (470), 김봉기 (440), 강상철 (500), 남창열 (451), 김일두 (350), 박성열 (970), 박복동 (420), 박복남 (745), 남창덕 (500), 강연철 (500), 두명 (370)
- 석장리** 문봉수 (675), 한동산 (300), 이상울 (280), 이관수 (200), 조금영 (310), 한동관 (241), 김성중 (295), 문길석 (430), 임창선 (490), 한동옥 (525)
- 신흥리** 최경립 (1,110), 양재철 (2,420), 박옥교 (310), 윤옥례 (160), 임남옥 (470), 이성남 (383), 안복수 (495), 안복성 (210),
- 백암리** 양귀환 (1,550), 최영근 (1,010), 김수원 (1,100), 최학순 (300), 문대규 (310), 유도근 (555), 김재완 (320),
- 내정리** 박순규 (660), 김말다 (565),
- 의암리** 방봉도 (1,070), 이수복 (1,180), 유춘근 (755), 유순천 (431), 양주태 (590), 전성풍 (900), 김기봉 (410), 박귀철 (470), 양계순 (245), 이종철 (410)
- 마치리** 장준철 (300), 이풍작 (120), 이관석 (450), 박봉선 (178), 최완중 (340), 김인선 (222), 박광내 (300), 김한철 (285), 장준동 (875),
- 서당리** 이종근 (1,220), 서병록 (580), 박철 (380), 김종환 (175), 이봉선 (980), 이준희 (420), 이기봉 (512), 려정만 (615), 허정기 (540),

◆ 팔 마 ◆

- 안은혜 (1,810), 윤성만 (1,840), 홍승명 (1,140), 원세군다 (1,230), 이순옥 (2,240), 장은석 (1,552), 박동섭 (1,050), 유정순 (1,235), 윤일만 (4,060), 박마리아 (1,040), 여누시아 (1,330), 이만수 (1,550), 김행곤 (1,000), 김기태 (2,000), 김영철 (1,105), 김기호 (3,000), 양안나 (2,090), 채남열 (1,240), 김영기 (1,000), 김기호 (1,000), 권선숙 (3,920), 김금선 (1,390), 전제덕 (1,000), 이아가다 (1,090), 박성운 신부 (1만), 소순형 신부 (6,750), 이용운 (729), 이두순 (185), 이광석 (740), 박소녀 (155), 김복순 (800), 토마스 (315), 임영주 (40), 김성순 (500), 이아네 (620), 김용호 (275), 박냉금 (600), 유만덕 (615), 김학순 (910), 박덕호 (650), 박골롬바 (300), 채고신 (750)

요심이 (199) 김병오



이신경외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구집)  
전화 ②-9793  
원장 이종두(헬리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도산매◎

태광사

(구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각종 사진 출장

카메라 대여, 학교 앨범취급

중앙사진관

한원규(야고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7901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당)  
전화 ② 1665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시장통  
(전화 ② 4577)

\*많이 찾아 주세요\*

梨花치과의원

박안드레아(찬운)  
☎ 8711(천일약국2층)

침입약국 2층  
조화당

전화국

국도극장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전주 교구 正義·平和미사 (23일 <월>) 오후 8시, 전동 성당에서...교구 正義·平和위원회 주관  
지난 4월 교구 사제총회에서는 매월 1회 정의·평화미사를 각 본당을 순회하며 봉헌키로 결의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누계 4,087,364원 : 계속 납부 바랍니다  
① 지난주 이후의 추가분...노승동(4,030원), 복자(4,585원), 삼례(1,355원), 부안(60,300원), 배요셉신부(10,000원), 화산(3,015),  
② 성금 내주신 분의 명단은 순정이 3면에 접수되는 대로 계속 내드립니다.
3. 성모의 밤 행사(30일 <월>) 오후 7시 반 전동성당에서...L.M.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주관  
① 전동성당 성모상 앞에서 행사를 갖고 치명자산까지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행렬함  
② 꼬미시움 직속 단원의 의무적인 참가와 지역 단원의 참여를 권장함
4. 전주 교구 가톨릭 약사회 연수회 예고 (6월 15일 <수>-16일 <목>),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동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꾸리아 옥외행사 : 22일 오전 11시, 덕진 충후탑  
※ 우천시에는 25일 <수>로 연기
  2. 유아영세 : 27일 <금> 어머니 미사 후
  3. 성세성사 : 28일 <토> 오후 7시
  4. 견진성사 : 29일 <일> 10시 미사중, 주교님 집전  
※ 견진교리 : 24 <화>-27 <금> 오후 8시 반
- 지난주 봉헌금 : 97,812원

- ※ 축영세! 29일(성신 강림 대축일) 10시 미사에
1. 성모의 밤 행사 : 29일 저녁미사 후, <목주지참>  
B.F.회과 교리교사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2. 신용조합 이사회 : 27일 <금> 오후 3시
  3. 신용조합 월례회 : 29일 <일> 공식미사 후
  4. 형제회 월례회 : 28일 <토> 오후 7시, 정만성택
- 지난주 봉헌금 : 30,50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 아영  
보좌 신부 권영희  
사도 회장 박종용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영화상영 : 오늘밤 8시 반, 본당에서 파티마와 로사리오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2. 성우회·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모의 밤 행사 : 28일 <토> 오후 8시 반,  
각 단체별 현화와 개인별 초 준비 바랍니다
  4. 오늘 강론 해 주신 최비리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2,030원

- ※ 예수 승천 야외미사 : 11시 서신동 진복사 뒷산
2. 성모의 밤 행사 : 31일 밤 8시  
<행사안내>-축사(사도회), 축시(대학생회), 축창(합창단), 독창(학생회), 단체별 꽃다발 증정, 개인별 초 준비, 기타 문의는 사무실에
  3. 애령회 월례회 : 29일 오전 9시, 회의실  
※ 금암동 김길선(말구) 상가에 협조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2,192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송

1. 신축위원회 모임 : 공식미사 후
  2. B.F.회에 참석, 가입 바랍니다
  3. 신자 및 예비자 교리 : 매주 <토·일> 미사 후
  4. 청년회원·B.F.회원 낚시 야유회 : 25일, 전당리 백석재
- 지난주 봉헌금 : 37,165원

1. L.M 옥외행사 겸 예수 승천 야외미사 : 오늘 12시 원당리(정수관)
  2. 새 성당 건립 기공식 : 6월 5일 오후 2시  
새 성당 건립 추진위원 총회 : 24일 <화> 저녁 8시 반
  3. 견진성사 : 6월 5일 10시 미사중  
견진교리 : 5월 30일-6월 4일
  4. 성모의 밤 : 30일, 치명자산 촛불행렬  
※ 10만번 목주기도-현재 20,492번
  5. 파티마 성모상 조배 :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6. 스킵라(聖衣) 수여식 (푸른군단 가입식) : 매주일 저녁미사 후
  7. 영세자 교리 : 수, 금, 일요일
- 지난주 봉헌금 : 115,2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 김종택(요셉) 신부님 본당에 부임!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오늘(29일) 신자들의 기도 : 장동주, 육남순, 박상기, 이양숙, 박경희
  2. 성모의 밤 행사 : 28일 <토> 저녁 8시  
각 신심단체별로 기도, 꽃다발, 초 봉헌 준비바람
- 지난주 봉헌금 : 37,945원